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4 | 2025 FEBRUARY | 02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한복음 1:5 -

칼럼

- 끝나지 않은 6.25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 월드와치리스트 2025 발표회 현장 스케치
- Dr. Evert J. Schut 인터뷰 자상중계
- 폭력 상황 - 동향 개요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위클리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2월호 | 통권 274호 |

등록번호-증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목차

03 칼럼

- 끝나지 않은 6.25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04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 월드와치리스트 2025 발표회 현장 스케치

- Dr. Evert J. Schut 인터뷰 지상중계

- 폭력 상황

- 동향 개요

22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위클리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끝나지 않은 6.25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김영우 목사

대통령의 계엄과 연이은 탄핵정국을 보면서 여전히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과 중북세력 그리고 중국등과 연계한 부정선거세력을 때문에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의 진위여부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동족 간의 그 슬픈 전쟁의 아픔과 고통의 여운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정치, 교육, 문화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땅의 이데올로기적 긴장은 여전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소모적이고도 허무한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 있는 동안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지금껏 이어지는 6.25 전쟁의 영향 아래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1943년 12월의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 등 국제적 질서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라 잃음의 역사와 동족간의 전쟁을 통해 처절히 배운 민족입니다. 부디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애국심과 함께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대처하도록 긍휼을 베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보듯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국가는 항상 전쟁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기독교인이었고 지금도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북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민족적이고 혈육적인 접근도 따듯한 태도이지만, 북한과 그들의 정신적 경제적 지주인 중국이 그동안 보인 기독교

박해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전쟁을 대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의 방향으로 나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비참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군의 원당교회는 영수 홍산식 등 전 교인 31명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김제군에 있는 만경교회는 김종한 목사와 강성진 영수들을 우물에 던져 익사시켰고, 이정순 집사 등 10여 명을 토굴 속에 몰아넣고 집단 사살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에 있는 덕암교회에서는 담임 이광년 전도사는 돌로, 22명의 성도는 죽창 등으로 살해하였고, 완주군 봉동읍의 제내리교회 성도 21명은 내무서로 모아 몰살하였습니다.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박해는 한국전쟁 중에 끝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비난하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한국교회는 극심한 고통과 포악한 적대 행위를 무수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감언이설 뒤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조롱하며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도 외치는 공산주의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세기에 일어난 가장 더러운 전쟁인 동족 간의 그 6.25 전쟁을 마감하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을 절망의 길로 이끄는 그 허무한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끊고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도 복음 통일 뿐임을 믿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토록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이유는 기독교만이 그들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참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며 저 북녘의 국민들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노력하는 오픈도어의 사역은 가치롭습니다. 모든 오픈도어 가족들에게 은혜주시길 바랍니다.

오픈도어는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성도들에게
다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월드와치리스트의 30년 넘는 역사는 오픈도어가
전세계 박해에 대해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픈도어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월드와치리스트 2025 발표회

현장 스케치

임훈희 간사

사진출처: 국민일보 신석현 포토그래퍼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2025 월드와치리스트 (WWL)'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요. 약 40여 명이 참석해 주셨는데 기자 외에도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성태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이날 행사는 시작되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교인을 돕는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님께서 박해동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WWL은 잠자는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고, 영적 부흥을 위한 중요한 도전을 준다", "선교 전략을 고민하며 선교 방향을 찾는 선교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데 참여하고 기도하게 한다. 이로써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 선교가 더욱 구체적으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WWL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 네덜란드 오픈도어 부총재 에버트 슈츠(Evert Schut) 박사님께서 WWL 2025의 박해 동인 및 철학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슬람적 억압, 종교적 민족주의 등

의 9가지 박해 동인을 소개하고 "WWL 연구는 우리가 박해받는 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모퉁이돌과 같다"며 "저마다 다른 박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위한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우리가 WWL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픈도어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박해교회를 찾아가고, 박해교회와 함께 사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WL 기념영상으로 탈북했다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북한 '주민'의 영상도 같이 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깊은 울림과 함께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는 "WWL의 정보를 알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목회에 무궁무진한 좋은 인사이트가 있고 성도들이 피부적으로 다가가 (박해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겐 땀해야 땀 수 없는 소중한 값진 자원"이라며 "WWL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화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회 형편과 교인들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여 고난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WWL 2025

Dr. Evert J. Schut

인터뷰 지상중계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0년간 오픈도어 사역의 현장을 책임지신 에버트 슈트 박사님을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15일 사랑의교회에서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이하 WWL)를 함께 발표했고, 대전 세로남교회(오정호목사), 성복중앙교회(길성운목사), 예정교회(설동욱목사), 삼일교회(송태근목사)의 초대를 받아 박해 받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한국교회에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CGNTV, CBS와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Dr. Evert Schut

(에버트 야곱 슈트 박사)

- 네덜란드, 전 오픈도어 부총재



에버트 박사는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서 40년 동안 일했으며, 주로 사역필드 최고책임자로 섬겼습니다. 현역 시절 전 세계 90여 개국을 방문하여 박해 받는 교회를 지원한 풍부한 사역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Q1.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주요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필드담당 부총재로 일하며 전 세계 60개국에서 선교사역의 현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전 세계 90여 개국을 방문했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 받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강하고 선교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교회가 성경 말씀처럼 몸의 지체 중 고통 받는 지체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고전 12:26)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WWL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약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은 상대방 옆에서 야 한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으면 돕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픈도어의 사역을 통해 매일 핍박 받는 형제자매들의 곁에 서서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Q2. 이번 방문때 WWL 발표를 함께 하셨는데요, 오픈도어가 언제 어떻게 WWL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계박해지수를 발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픈도어는 1991년에 WWL을 시작했고 1992년에 첫 번째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 상황이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기독교인이 느끼는 압력이나 심지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정도가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박해는 종교, 이념 또는 타락한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종종 사회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갖

기를 원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해의 이유는 다양하므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박해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박해 엔진'은 기독교인이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으로 박해를 받는 뚜렷한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WWL는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상위 50개국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 목록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모든 사역의 초석이 됩니다.

Q3. WWL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2년째 발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WWL가 오픈도어의 사역에 어떻게 도전을 주었는지, 또 어떤 결과들을 이루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WWL의 우선 목표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박해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WWL의 주요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각국의 박해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어디에서 일해야 할까? 기도가 가장 필요한 곳은?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신학 이슈는? 박해에 직면한 교회를 강화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어떤 성경적 관점이 필요한가? 그들의 정확한 필요와 초점은 무엇인가? 리더십 훈련 또는 어린이 사역은?

이러한 질문들을 함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WWL의 설문 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했습니다. 현재 총 127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을 면밀히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이 바로 WWL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지자들이 박해의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4. 한국교회의 시각에서 오픈도어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에 적극적인 국가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속에서 오픈도어의 접근 방식을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픈

도어만의 특별한 사역비결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현지교회 중심으로 협력하여 일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는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로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글래스고에 있는 WEC 선교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세계 곳곳에 선교의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55년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교회가 서방 교회에 의해 잊혀져가고 있음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강하게 하라'(계 3:2)고 브라더 앤드류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브라더 앤드류는 공산주의 세계의 교회에 성경과 기독교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개인 성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밀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픈도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과 차별에 직면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강화하고 무장시켜 세계 복음 전도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박해받는 교회에 가서 성경, 훈련, 문해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을 강화하여 그들이 그 나라에 남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환경에 처한 기독교인. 그들은 각자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강화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오픈도어만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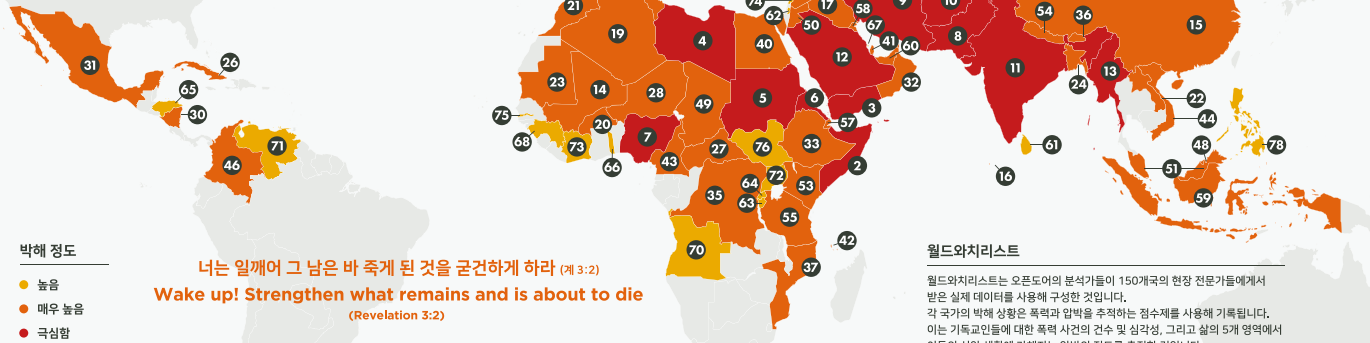
Q5. 끝으로, 한국교회가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강한 교회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소리쳐 외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해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WORLD WATCH LIST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

기독교인들이 높음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로 고통받는 국가 전체



- | | | | | | | | |
|-----------|-------------|--------------|-----------------|-----------|----------------|-------------|-----------|
| 1 북한 | 11 인도 | 21 모로코 | 31 멕시코 | 41 카타르 | 51 말레이시아 | 61 스리랑카 | 71 베네수엘라 |
| 2 소말리아 | 12 사우디 아라비아 | 22 라오스 | 32 오만 | 42 코모로 | 52 아제르바이잔 | 62 팔레스타인 영토 | 72 우간다 |
| 3 예멘 | 13 미얀마 | 23 모리타니 | 33 에티오피아 | 43 카메룬 | 53 케냐 | 63 브룬디 | 73 코트디부아르 |
| 4 리비아 | 14 말리 | 24 방글라데시 | 34 튀니지 | 44 베트남 | 54 네팔 | 64 르완다 | 74 레바논 |
| 5 수단 | 15 중국 | 25 우즈베키스탄 | 35 콩고민주공화국(DRC) | 45 터키 | 55 탄자니아 | 65 온두라스 | 75 감비아 |
| 6 에리트레아 | 16 몰도바 | 26 쿠바 | 36 부탄 | 46 콜롬비아 | 56 러시아 연방 | 66 토고 | 76 남수단 |
| 7 나이지리아 | 17 이라크 | 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37 모잠비크 | 47 키르기스스탄 | 57 지부티 | 67 바레인 | 77 벨로루시 |
| 8 파키스탄 | 18 시리아 | 28 니제르 | 38 카자흐스탄 | 48 브루나이 | 58 쿠웨이트 | 68 기니 | 78 필리핀 |
| 9 이란 | 19 알제리 | 29 투르크메니스탄 | 39 타지키스탄 | 49 차드 | 59 인도네시아 | 69 우크라이나 | |
| 10 아프가니스탄 | 20 부르키나 파소 | 30 니카라과 | 40 이집트 | 50 요르단 | 60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70 앙골라 |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발표

월드와치리스트가 무엇인가요?

월드와치리스트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정도의 박해를 직면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한 연간 보고입니다. 본 연구는 오픈도어에 의해 실시되며, 폭력, 정부 규제, 그리고 사회적 적대감에 대해 수집된 증거에 근거합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종교자유연구소에 의해 검증됩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특히 가장 힘든 곳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굳건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픈도어는 그들이 자유롭게 믿고, 예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편협성과 차별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증진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외교 정책과 외교적 개입에서 폭력적인 공격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오픈도어

25개국에 지부를 두고 60년 넘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고 강화하며 7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글로벌 회원 단체인 국제오픈도어 지부로 한국오픈도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트라우마 돌봄, 법적인 도움, 은신처 및 학교, 기독교 문헌, 훈련, 그리고 자원을 통한 영적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

2025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독재적 제약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기독교인 생활이 어려운 국가를 매년 순위화한 월드와치리스트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북한

북한은 3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1993년 월드와치리스트가 처음 발표된 이후 23번째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에 2022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함락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2025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통계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WWL 2025 2023.10.01- 2024.09.30	WWL 2024 2022.10.01- 2023.09.30
신앙으로 인해 살해된 기독교인 수	4,476	4,998
신앙으로 인해 공격받은 가족, 가게, 사업	28,368	21,431
폭력으로 인해 강제 이주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수	1,600만	1,620만
심한강도의박해를받는기독교인수	3억 8,000만	3억 6,500만

북한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견뎌온 숨 막히는 억압과 함께 2025년 월드워치리스트는 수년간 지속된 다른 동향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 많은 지역에서 계속되는 치명적인 폭력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의 최근 전개는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독재주의 증가

키르기스스탄의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많은 7.5점 상승하여, 순위가 14개 올라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0위에 진입한 것입니다.

월드와치리서치 분석가 롤프 지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사디르] 자파로프 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까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독재적이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포괄적으로 더욱 제한적인 법안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저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돌을 던지는 공격 사건과 예배 중 습격 사건을 포함한 교회에 대한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이웃 나라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드와치리스트 점수가



3점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순위가 9개 상승하여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독교 예배 모임에 대한 경찰 급습과 기독교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서치의 관리 책임자인 프란스 비어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중아시아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위협이 강화되어, 해당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심화하는 독재 정권과 극단주의 요소들로 시달리는 국가들에서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더욱 취약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계속되는 폭력

수단은 내전이 격화되어 월드와치리스트 점수가 3점 증가하며 순위가 3개 상승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기독교인 살해, 성폭력 피해, 그리고 기독교 가옥과 사업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중반까지 77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형민이 발생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라니 민병대와 지하디스트 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심각합니다. 오픈도어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은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다년간의 대응입니다. 본 캠페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박해가가장극심한 곳에서 아프리카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설수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외 주목할 만한 발견

내전: 예멘의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강력하게 4.6점 증가하며, 해당 국가는 3위에 올랐습니다. 계속되는 내전, 그리고 후티 반군의 증가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 가정교회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 기독교인 개종자는 가족들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미얀마의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군부와 다수의 반군부 민병대 간의 전투로 인해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13개국을 포함하는 “극심한 박해” 영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라지는 교회: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가시적인 기독교 존재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자들을 고립 또는 지하 예배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시 국가: 중국, 그리고 이외 독재 국가들 내 기독교인들은 발달한 감시로 인해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갈수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WEEKLY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2025 월드와치리스트 - 폭력 점수 비교

2025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국가명	지역	하위 지역	2025 월드와치리스트 폭력 점수
7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6.7
8	파키스탄	아시아	남아시아	16.7
11	인도	아시아	남아시아	16.5
13	미얀마	아시아	동남아시아	16.5
5	수단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16.1
24	방글라데시	아시아	남아시아	16.1
35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16.1
43	카메룬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16.1
72	우간다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6.1
37	모잠비크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5.9
49	차드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15.9
28	니제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5.7
14	말리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5.6
20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5.6
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15.6
33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5.6
76	남수단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5.6
55	탄자니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5.4
31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중부 아프리카	14.6
63	부룬디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4.6
1	북한	아시아	동아시아	14.4
53	케냐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3.9
65	온두라스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13.1
46	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12.6
6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2.2
2	소말리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1.1
15	중국	아시아	동아시아	11.1
9	이란	아시아	남아시아	10.9
3	예멘	아시아	서아시아	10.6
4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10.6
22	라오스	아시아	동남아시아	9.8
30	니카라과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9.6
71	베네수엘라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9.6
73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9.6
64	르완다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9.4
66	토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9.3

26	쿠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9.1
68	기니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8.9
78	필리핀	아시아	동남아시아	8.5
21	모로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8.3
70	앙골라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8.3
34	튀니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8.1
61	스리랑카	아시아	남아시아	7.6
69	우크라이나	유럽	동유럽	7.2
74	레바논	아시아	서아시아	7.2
18	시리아	아시아	서아시아	7.0
47	키르기스스탄	아시아	중앙아시아	6.9
19	알제리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6.3
40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6.3
17	이라크	아시아	서아시아	6.1
44	베트남	아시아	동남아시아	5.9
54	네팔	아시아	남아시아	5.9
59	인도네시아	아시아	동남아시아	5.7
52	아제르바이잔	아시아	서아시아	5.6
45	튀르키예	아시아	서아시아	5.4
10	아프가니스탄	아시아	남아시아	5.0
25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중앙아시아	4.4
56	러시아 연방	유럽	동유럽	4.4
75	감비아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4.4
38	카자흐스탄	아시아	중앙아시아	4.3
12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서아시아	3.3
77	벨라루스	유럽	동유럽	3.1
32	오만	아시아	서아시아	3.0
51	말레이시아	아시아	동남아시아	3.0
23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2.8
42	코모로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2.6
50	요르단	아시아	서아시아	2.4
36	부탄	아시아	남아시아	2.2
39	타지키스탄	아시아	중앙아시아	1.9
57	지부티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1.7
29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아	중앙아시아	1.5
58	쿠웨이트	아시아	서아시아	0.9
16	몰디브	아시아	남아시아	0.7
41	카타르	아시아	서아시아	0.7
48	브루나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0.6
60	아랍에미리트	아시아	서아시아	0.6
67	바레인	아시아	서아시아	0.6
62	팔레스타인 영토	아시아	서아시아	0.2

동향 개요

폭력으로 인해 점수가 크게 증가하다

반기독교 폭력의 증가는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여러 국가들의 점수 변동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폭력이 발생했지만, 그 배경은 서로 달랐습니다: 일부 국가는 강압적으로 통제되는 독재 국가였고, 다른 일부는 정부가 약하거나 내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독재주의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국 중 박해 점수가 7점 이상 증가한 키르기스스탄 만큼 점수가 많이 증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해당 중앙아시아 국가는 지난해 61위에서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에는 47위로 순위가 14위 상승했습니다 -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0위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번 리스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이는 단연코 가장 큰 변동이며, 주요 원인은 교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연합은 카라쿨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한 기독교 단체 사무실에 돌을 던지며 해당 단체를 부지에서 쫓아내려는 시도가 해당 해에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일부 무장한 국가종교위원회의 대표들이 탈라스에 있는 성 니콜라스 카톨릭 교회를 급습하여 예배 후 귀가하는 신자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강제 이동시켰고, 두 명의 슬로바키아 수녀가 "불법 선교 활동"과 "이념 확산"을 인정한다는 진술에 서명할 때까지 붙잡아 뒀습니다.

이러한 공격 사건들로 인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키르기스스탄의 폭력 지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대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4월에 정부가 대중 비판과 평화적 반대 목

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하게 정의된 문화 전통과 국가적 가치의 관념들을 선전하는 새로운 법안들은 법치를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정치활동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는 결사의 자유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웃 국가 카자흐스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2025년에 박해 점수가 3점 증가했습니다; 이 보다 크게 증가한 국가는 네 개국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순위는 9개 올라 38위에 올랐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순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카자흐 정권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점점 더 독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2019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포스트 소비에트 독립 이후 가장 유혈이 난자한 사회적 불안이 많은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 경찰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와치리스트리서치는 남부 카자흐스탄

의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 공동체 세 곳에서 네 번의 예배 모임에 경찰이 급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종교적 이유로 성폭력을 당했으며, 최소 같은 만큼의 여성들이 강제로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4분의 1이 기독교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작은 수이지만, 특히 보다 큰 동방 정교회는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과거 상황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입니다. 개신교는 기독교인 비율에서 극소수입니다.

예멘과 미얀마의 내전

2015년부터 예멘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군 간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 협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라에는 무질서가 퍼져있어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집단을 겨냥한 탄압에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멘 법은 이슬람에서의 개종과 신성모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신앙 자체 때문에, 혹은 반기독교적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가족이나 타인에 의한 허위 고발로 인해 당국에 체포 당했습니다. 후티의 세력 증가와 2023년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후 많은 가정교회가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소수의 이민자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 사적인 예배가 허용되지만, 내전으로 인해 수년간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 이러한 위험한 불안정성은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4.6점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반기독교 폭력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예멘보다 전체 점수가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예멘은 순위가 2개 올라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멘보다 기독교인들이 살기 힘든 국가는 전 세계에서 북한과 소말리아 밖에 없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 혼란 속에



있으며, 2024년에도 군부와 다수의 반군 세력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며 국가는 순위가 4개 올라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에 혼란이 일어난 원인; 갈등 속에 배열된 세력과 변화, 어두운 동맹; 이웃 국가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현재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방글라데시 국경 넘어 난민 캠프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희망은 희미하며; 일부 지역의 보안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심지어 악화되었고; 인간성에 대한 계속되는 범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얀마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무력 충돌 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며, 도시에서도 더욱 더 그러합니다. 카친주에만 10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정권 세력 또는 카친 반군에 의해 살해 당하거나 구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난민 캠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군부는 기독교 교회들이 반란자를 숨겨준다고 의심하여 공격을 더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들과 평범한 성도들이 반대 세력을 지지하거나 심지어 지휘한다고 의심하여 구금하고 기독교가 다수인 일부 주에 무분별한 공격을 착수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 반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미얀마의 무법 상태인 외딴 지역과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반대 세력과 연결된 사람들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약거래와 전쟁속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기타 무법활동으로 돈을 보는 단체들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폭력

다른 어떤 대륙 보다 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거주합니다.
수년 동안 월드와치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독교 인구가 표적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정부 불안정으로 인해 기회주의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이후에 상위 50개국에 포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개국의 폭력 점수는 평균적으로 1점 증가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
15개국 중 13개국의 폭력 상황은 월드와치리스트 방법론에 따라
“극도로 높음” 범위에 평가되었습니다.

오픈도어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은(Arise Africa) 이렇게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다년간의 대응입니다. 오픈도어는 아프리카 교회와 함께 서서, 박해가 가장 극심한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살아 내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 이를 위해서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단의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3점 상승했으며; 상위 50개국 중 더 많이 상승한 국가는 3개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2023년 봄에 수단 정부군과 민병대 신속지원군 사이에 발생한 내전이 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연구는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 및 성폭행, 그리고 기독교 가옥 및 사업체에 대한 공격건이 증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반에는 4,900만 인구 중 77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고 -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에는 인종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아랍 민족이 아닌 토착 아프리카 혈통은 신앙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으로도 표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혼란에 갇혀 도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포격 당하고, 약탈 당하고, 그리고 점령 당했습니다. 폭력 점수의 급증으로 수단은 순위가 3개 올라가 5위로 올랐습니다.

차드의 전체 점수는 4년 연속 최소 2점 증가했으며,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49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상위 50위에 들어섰습니다. 그해 동안 폭력 점수가 더 많이 증가한 곳은 키르기스스탄 밖에 없습니다.

2024년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치적 긴장, 약한 민주적 절차, 그리고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에 맞선 정부의 투쟁 -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만연한 반기독교 폭력 역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법령으로 지배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에 거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보안군은 차드의 주요 야당 지도자를 살해했습니다. 동부에는 수단 내전을 피해 도망한 난민들이 난민 캠프로 몰리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과 풀라니 무장 세력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해 살해, 납치, 강제 이주를 초래했고, 대개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 직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고, 사회 배척, 감시, 그리고 위협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흔히 “다른 편”을 지지하거나 외국 스파이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난민이 되고, 재산은 파괴되고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 단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는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엔자메나 밖에 있는 지역들 가운데서 특히 더 어렵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 부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다른데, 이는 더 악화될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이 살기에 가장 긴급하고 위험한 곳이었으며,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2024년 점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월드와치리스트 방법론으로 국가 내 반기독교



폭력을 측정했을 때 이미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7위를 기록하며 상위 10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고합니다: 나라의 북동부와 북서부 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혼한 북중부 지역에서 풀라니 무장 세력들이 농사 공동체를 공격해 수백명 특히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특히 보코하람과 분파인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와 같은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통제가 거의 없고 기독교인들과 공동체가 계속해서 습격, 성폭력, 그리고 방어벽 살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북부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납치 강도는 최근 몇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폭력은 남부주에도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종교자유 관측소의 2024년 보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 30,88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2,360명이 기독교인, 8,315명이 무슬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인구의 거의 절반씩 차지하는 나라에서 3대 1의 격차입니다. Truth Nigeria는 2023년 성탄절에 3,000명 이상의 풀라니 민병대가 플레토주 38개 마을을 습격해 최소 295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3년, 신임 대통령 볼라 아메드 티누부는 정부의 주도하에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보다 적절한 균형을 설정하며 리더십을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30일에 끝난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의 12개월 간의 보고기간 동안 이에 대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 부활절 저녁에, 예를 들어 남부 카두나주의 마을들은 군사 시설이 가득한 지역들이 공격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뉴스 매체에 알렸습니다 (Truth Nigeria, 2 April 2024).

지하로 숨어드는 교회 징후

박해당한기독교교회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면박해를측정할수있을까요?

2025년 알제리의 전체 점수는 전년도보다 2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개신교 교회가 강제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폐쇄될 교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알제리의 폭력 지수는 감소했고, 따라서 전체 점수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재판과 형의 선고를 기다리는 기독교인의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무슬림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에 따른 기소를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의 재정적 및 조직적 압박을 시도했으며, 특히 온라인 기독교 활동에 집중



했습니다. 교회 폐쇄와 더불어 이러한 전반적인 압박으로 인해 많은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고립되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다수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고립되고 교회가 축소되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소수 기독교 공동체는 2023년 3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된 강력 탄압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023년 2월 대지진 이후 - 보고 기간 동안 교회의 약탈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증가, 부패 확산, 종교적 차별,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이주하며 교회의 고대 발생지 인구 통계를 바꾸고 있고, 교회를 약화시키며 이 지역 기독교인들 삶의 미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기독교 공동체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33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으며, 폭력으로 대부분의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당국에 강요된 기존의 제약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여행 제한이 전쟁 이후 더 좁혀졌습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는 깊이 지하로 숨어들어, 탈레반 당국이 강력 탄압할 만한 가시적인 기독교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고립으로 인해 신앙 관련 공격 사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마다 중국 내 비교적 공개적인 교회의 존재 시대는 기억속으로 더 깊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정부가 용인했던 미등록 교회들은 당국이 더 자주 규제를 강행하고 정책을 강화하며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 승인을 받은 교회는 더욱 강한 사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은 목회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도록 세뇌하고, 아동들에 대한 종교 교육을 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들은 더 통제하기 쉬운 큰 교회로 합치도록 강요당하거나 고립된 지하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감시 체계를 보유한 국가이지만, 이는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독재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온라인과 실제 생활에서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월드와치리스트 연구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욱 주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특히 오픈도어를 향한 긴급한 신호인데, 오픈도어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3:2)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소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드러지는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점은 71점을 기록한 멕시코의 전체 점수이며, 이는 지난 해보다 2.4점 증가한 것으로 월드와치리스트에서 멕시코 기록한 점수 중 가장 높습니다.

멕시코의 전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단일 요소는 폭력입니다. 2025년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했으며, 14.6점을 기록한 멕시코의 폭력 지수는 해당 국가가 기록한 폭력 점수 중 역대 최고치이며,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폭력 지수입니다.

조직 범죄는 멕시코에서 큰 우려이며, 카르텔들이 서로 싸우며 특히 평화를 중재하려고 하거나 폭력과 협박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기

독교 단체들을 자주 겨냥합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구자들은 가장 최근의 보고 기간 동안 신앙 때문에 살해되거나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급등하고 기독교인 기복과 소유물에 대한 공격도 증가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더 폭력적인 한해였습니다; 2024년 중반에 실시된 선거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폭력 사건이 급증해 여러 부서의 후보자들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선거 전의 폭력 급증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직면한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멕시코는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가 올라 눈에 띄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31위를 기록하여 니카라과보다 순위가 1개 낮고, 26위를 기록한 쿠바보다 순위가 5개 뒤에 있습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장 극심한 형태의 폭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약화되었습니다. 월드와치리스트 폭력 지수는 전년도에 “극도로 높음”을 기록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매우 높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하락은 종교적 이유로 인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해 사건 기록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 한 해

동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감소는 인도네시아의 전체 점수를 떨어트려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당 국가는 2024년에 42위를, 그리고 올해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정부 게릴라 운동에 더해 여러 범죄 조직들이 영토 및

마약 거래 주도권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궁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을 포함해 영토 지배 시도에 방해된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에 게릴라와 마약 밀거래자들은 임시 휴전을 연장했고, 콜롬비아 내 반기독교 폭력은 가장 최근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가라앉았습니다. 나라의 폭력 점수는 여전히 “극도로 높음” 범주에 있지만, 신앙을 이유로 살해 당한 기독교인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점수도 내려갔습니다. 콜롬비아의 전체 점수는 2점 감소해 순위가 12개 내려가 월드와치리스트에서 46위를 기록했습니다.

니카라과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대략 1점 올랐습니다; 30위인 순위는 변함 없습니다. 독재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고, 이는 정부를 주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복에 특히 더 취약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오르테가에게 하역금 인권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2022 유럽연합 니카라과 제재에 동참하여 2024년 오르테가 정부에 자산 및 여행 제한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상황은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오르테가 정부는 반국가 선동, 방해, 그리고 불복종으로 2022년 8월 구금되어 2023년 2월에 26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마타갈파고구장 롤란도 호세 알바레스 주교를 석방하고 시민권을 박탈하여 강제 추방했습니다. 그가 석방되고 11개월 이후 한 달 동안 불잡힌 18명의 다른 성직자들과 신학생들이 석방되었는데, 이는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가장 최근에 니카라과 성직자들이 줄줄이 강제 추방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2개월 동안의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대부분이 성직자들인 - 기독교인 94명이 추방되었습니다. The Pillar에 따르면, 2018년 이후 110명으로 추측되는 성직자들, 니카라과에 있는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약 15%가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정기후원 선택



[자동이체 신청하기]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wig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